



조원용 / 정회원, 다이아몬드 건축사사무소(주)
by Cho, Won-yong, KIRA

약력

- 조선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석사
- 안산1대학 겸임교수

농사를 지으며 인생을 배운다 II

Learning Life from Farming II

2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작년에 실수했던 것을 되돌아보며 올해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계획대로 잘 다듬었더니 주변에서 처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내가 프로 농부로 보이ना보다. 내가 봐도 전체 밭 중에 예쁘게 손질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밭 중의 하나로써 종류도 다양하게 심겨져있는 우리 밭을 감탄하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총 20평 중 10평 정도를 고추농사에 할애하고 나머지에 열매 맺는 식물로 찰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피망, 가지, 호박을 심고, 뿌리 야채로 강화순무, 당근, 토란, 땅콩을 심었다. 잎채소로는 상추(적치마, 청치마, 꽃상추)와 들깨, 갓, 민들레를 담은 치커리 그리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일을 많이 심었고, 뿌리와 잎을 다 먹을 수 있는 비트와 콜라비도 심었다. 갓은 다른 야채에 비해 상당히 빨리 자라서 다 베어 먹고 또 파종해서 이모작을 했다. 밭 둘레로 심어둔 토란은 그 잎이 참 넓고 예뻐서 운치도 있었다.

돼지호박이라 불리는 맛있는 호박인 주키니도 생긴 게 예뻐서 두뿌리를 심었는데, 다른 호박과 달리 넝쿨이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나 배추처럼 그냥 한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특이한 호박이었다. 그런데, 열매가 자라면서 땅에 닿으니 다 자라 따 먹기도 전에 계속 썩는 것이 아닌가? 맛도 없는 것이 썩기도 잘 썩네. 그러니 인기가 있을 턱이 있나 하면서 그냥 뽑아버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리라.

봄에 심었던 잎채소는 우리 가족을 포함해 여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친근한 이웃은 물론이고 우리 강아지들을 돌봐주시는 수의사에 이르기까지 무농약 건강채소로 큰 식도락을 했으니 작은 수고가 커다란 감동과 행복을 경험케 한 것은 또 다른 인생의 결실이다.

지난 봄에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고향으로 갔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그 때는 적잖이 놀랐다. 음식준비를 위해 병원 바로 앞에 있던 재래시장에 생채를 사러 나갔다가 어릴적 추억을 생각하며 수세미 모종 다섯 쪽을 사와서 심었다. 그리고 조롱박 씨를 구해서 심었더니 이 녀석들이 제법 잘 자라 주위에서 보기에 그렇싸 했나보다. 수세미와 박을 위해서는 일부러 높은 집을 지어야했다. 고추대로 사용되는 경량철물 부재를

작년에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것이 '시기'였다.
 그럭저럭 농사를 지었지만, 여름 농사가 끝나고 배추와 무를 심을 때
 바빠서 9월 중순에야 겨우 심을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이다.
 결국 11월이 되어서도 아직 어린 배추와 무로 남아있어서
 그냥 거들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큰 배움이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얻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노끈으로 튼튼하게 엮어가며 박공틀을 만들어 지어놓았다. 사실 밭이랑 두개에 걸쳐서 지은 지라 두 사람이 들어가 서 있을만한 그런 크기였지만, 그 밭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오이나 호박을 위해 틀을 만들어 세워놓았지만, 장마 때 비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다 부서져 버렸다. 그 통에 오직 내가 만든 틀만이 유일하게 남게 된 것이다. 사실 만들면서도 내가 건축사인데, 이거 무너지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결국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것이다. 그 덕분에 한 여름에 햇빛이 강할 때도 그 안에서 있으면 제법 시원하고 바람도 잘 불어주어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 쉬는 곳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았다.

수세미가 제법 잘 자랐는데, 고작 네개가 열리고 마는 것이다. 다섯뿌리에서 네개라니..., 영양분이 부족한 듯하여 복합비료를 구해다 주변에 잘 뿌려주었더니 두어 주 뒤에 또 여러 개가 달렸다. 적절한 시기에 양분을 공급받은 수세미가 결실을 한 것이다. 조롱박도 제법 잘 자라서 한 가닥에서 여러 개가 달렸다. 작년에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것이 '시기'였다. 그럭저럭 농사를 지었지만, 여름 농사가 끝나고 배추와 무를 심을 때 바빠서 9월 중순에야 겨우 심을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이다. 결국 11월이 되어서도 아직 어린 배추와 무로 남아있어서 그냥 거들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큰 배움이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얻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올해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있었다. 고추모종은 강화도 시장에서 사온 것이었는데, 아주 튼튼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 좋은 품종이었다. 그래서 옆 밭의 어르신들도 내년에는 고추모종을 함께 사달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풋고추 때부터 잘 따먹었고, 빨갛게 익혀서 태양초로 잘 말려야지 생각하며 한여름 뜨거운 햇빛도 고맙게 생각했다. 작년부터 농사를 지으며 느낀 것인데, 적절하게 비와 햇빛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렇지 않고 햇빛만 있다거나 비만 온다면 식물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매일매일 고마웠다.

작년에 고추농사가 잘 됐었기에 올해도 고추농사는 걱정을 안했다.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숙련된 기법과 환경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밭을 만들었기에, 나 스스로의 맘속에도 뿌듯함이 있었다. 어찌다 몇 개씩 병과 충이 생겨도 그냥 그것만 따버리고 농약도 하지 않았고 깨끗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였었다. 어느덧 여름 햇볕의 뜨거움은 고추를 빨갛게 만들어 갔고, 또 가족 및 주변 이웃들과 즐겁게 나눌 생각을 하니 얼굴엔 절로 미소가 감돌았다.

그런데, 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고추에 문제가 생겼다. 봄철에 잘 먹었던 토마토와 잎채소들을 다 같이엮고 배추와 무를 심기위해

삶에서도 파종과 수확의 적절한 시기가 있다.

파종때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수확의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시기를 한순간 놓치면 태풍이나 홍수로

곡식을 모두 잃기도 하는 것을 봐오지 않았던가?

시기를 알고 놓치지 않는 것은 큰 지혜임에 틀림없다.

인생의 연륜이 풍성한 어른들이 지혜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구나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게 된다.

밭을 정리하던 중 고추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심각한 탄저병이 생긴 것을 알았다. 여름 휴가철 약 2주 정도에 있었던 무더위 때 밭에 나가기 싫어서 그냥 방치해뒀었는데, 그 때가 문제였던 모양이다. 하도 더워서 빨갱게 익은 것을 보고도 좀 더 있다 따야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었던 그 시기에 나의 고추들은 죽어갔던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원래는 더 키우려고 했던 고추를 모두 뽑아 하나씩 열매를 따기 시작했는데, 한 나무에 대략 30개정도 달린 고추 열매 중에서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고작 한 두 개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얼마나 맘 흘리고 고생해서 지은 농사인데... 결국 1/30정도 수확을 한 것이다. 그나마 거뒀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병들거나 상한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거의 수확을 못 한 셈이리라. 이미 전에 따먹었던 것을 감사해야할 상황이었다.

아, 나는 또 배우는구나.

작년에 파종의 시기를 놓쳐서 수확이 형편없었는데, 올해는 수확의 시기를 놓치니 그 결과가 더 참담함을...

그렇진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내 인생의 많은 상황에서 시기를 놓친 경우가 알게 모르게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했던 유명한 말도 기억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그건 파종의 시기이다. 수확의 시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코 빠를 수가 없다. 어설픈 2년차 농부는 지난 5개월간 땀과 빗속에서 몸의 힘듦을 참아가며 흙을 밟았던 수고를 고추열매대신 깨달음으로 얻었다. 감사하지만 비싼 댓가다.

미련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경험해봐야 깨닫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자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 삶에서도 파종과 수확의 적절한 시기가 있다. 파종때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수확의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시기를 한순간 놓치면 태풍이나 홍수로 곡식을 모두 잃기도 하는 것을 봐오지 않았던가? 시기를 알고 놓치지 않는 것은 큰 지혜임에 틀림없다. 인생의 연륜이 풍성한 어른들이 지혜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구나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게 된다.

나의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 채워질 그 때는 언제일까 고민에 빠져든다. ㉞